

『三國遺事』 「孝善」篇 分析 研究

嚴璿鎔*

目 次

- I. 序論
- II. 「孝善」篇에 나타난 孝
 1. 古典에 나타난 孝
 2. 眞定과 大城의 불교적 孝
 3. 向得과 孫順 그리고 貧女의 孝
- III. 「孝善」篇 設定의 意義
- IV. 結論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윤리인 ‘효’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진정의 설화’는 ‘효선쌍미(孝善雙美)’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버이에 대한 효와 불에 대한 선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효를 행하는 것은 선업을 쌓는 일이고, 선업을 쌓는 것은 곧 효를 행한다고 고차원적인 효를 보여주고 있다. ‘대성’ 역시 ‘진정’과 마찬가지로 봉양과 보시에 그의 효선이 초점이 있다. 진정과 대성 설화는 어머니의 구양(口養)뿐만 아니라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이를 맞추어 드린 효행설화이다. 아울러 효선 편목의 서사는 ‘주체의 신성성 → 시련 및 도전 → 조력자의 도움 → 효 실현의 구조’를 지향한다.

일연은 향득의 효행을 ‘할고공친(割股供親)’으로 요약해서 제목을 삼았다. 그러므로 향득이 어버이를 위해서 다리 살을 베어 바쳤다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정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입장에서

* 大田中央高等學校 教師 / sun8392@hanmail.net

보면 불법을 위하여 혹은 부모와 타인을 위하여 몸을 보시한 것으로, 원래 유교에서는 신체의 터럭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몸과 마음을 결집한 지극한 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손순매아설화’는 효선편의 다른 설화와 마찬가지로 ‘효자는 하늘이 알아주고 효행은 신이 감응하여 돕는다.’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어머니가 좋아하는 손자를 묻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효자는 하늘이 알아서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막아준다는 신념 때문에 죄악이 오히려 미담으로 될 수 있고,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설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빈녀양모설화’는 어머니의 구복(口腹)만을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헤드리지 못했음을 탄식한다고 하여, 효친에는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시는 일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훗날 그 집을 희사하여 절로삼고 양존사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빈녀양모설화’도 불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신 공희를 통한 효행설화의 일반적 구조는 ‘효자(효녀)가 부모를 정성을 다해 봉양함 → 가장 중요한 것(자기 신체의 일부, 자신의 목숨 등)을 희생함 →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 → 부모에게 효도하며 행복한 결말에 이름’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선」편 설정의 의의는 전체 편목과 유기적인 관련에서 볼 때, 신이성(神異性)과 신성성(神聖性)이라는 요소로 인해 다른 설화와 구분 지으려한 기이 편과 수미상응(首尾相應)의 관계를 지님으로써, 불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효(孝)’라는 현실에서의 실천윤리를 통해 불교 사상을 강조하는데 있다. 일연은 「효선」을 통하여 당위적 효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불교의 감화력이 체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엮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삼국유사, 효선편, 효행설화, 빈녀양모설화

I. 序論

『삼국유사』는 5권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王曆 제1과 紀異 제1, 권2는 권1 기이의 후속편, 권3은 興法 제3과 塔像 제4, 권4는 義解 제5, 권5는 神呪 제6, 感通 제7, 避隱 제8, 孝善 제9로 이루어져 있다.¹⁾

『삼국유사』에서의 효 사상은 「효선」편에 잘 나타나 있다. 효자는 일 연이 지극한 효자로 「효선」편을 마련한 것이 생전의 노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 즉, 『삼국유사』를 찬술한 것은 그 노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일로 그 노모에 대한 효성이 『삼국유사』 말미에 「효선」편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효선」편은 모두 다섯 편으로 되어있는데,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向得舍知割股供親>, <孫順埋兒>, <貧女養母>가 바로 그것이다. 「효선」편의 특색이라 할 것은 거의 어머니에 대한 효로써 아버지에 대한 것은 단지 한 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유교주의와는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런 점에서 일연 자신이 유교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유사』 속에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범위를 한정하여 본 연구는 『삼국유사』 「효선」편에 나오는 다섯 편을 분석 대상으로 효의 본질을 밝힘과 동시에 성격 및 설정의 의의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고전에 나오는 효’에서는 유교의 경전과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효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전에 나오는 효 사상의 모습을 알아본다. 다섯 편의 효행설화를 ‘진정과 대성의 불교적인

1) 김원중(2002), 19면.

2) 민병하(1974), 235-236면.

효'와 '향득과 손순 그리고 빈녀의 효'로 나누고, 전자에서는 현세에서의 심신의 평안이나 물질적인 충족을 도모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보리심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드린 진정한 효라는 것을 알아보고, 후자에서는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봉양함에 물질적인 口養에 힘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史書에 입전되었다는 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들이 단지 물질적인 구양에만 힘쓴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선」편은 여타의 앞 편목을 마감하는 편목이며, 「기이」편과 首尾雙應이라는 면에서 그 설정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孝善」篇에 나타난 孝

1. 古典에 나타난 孝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효의 사상을 이론 이전에 몸으로 행하여온 민족으로 중국의 경우와 같이 『孝經』에 버금가는 이론서 저술보다는 실천도덕인 조상숭배사상으로써 오늘날까지 하나의 미풍양속을 이루고 있다. 효는 좁게는 부모를 받드는 윤리를 뜻하지만 넓게는 인간의 도리, 인간의 사랑을 포괄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효보다는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해드리는 효가 더욱 고귀한 것이다.³⁾

효는 百行의 근본으로서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효에 대해서 우리는 유교의 윤리관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한민족의 전통적인 의식세계에서 비롯된 가치체계에다가 유교의 윤리관이 합해

3) 최근덕(1995), 87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문 전적이 들어온 것이 자명하기에 고전에 나타난 효 사상에 대하여 『論語』·『孟子』·『孝經』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전에 나타난 효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유교의 효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효의 개념은 가족·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질서규범이다. 먼저 효가 발생하게 된 계기와 그 내용을 『효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의 한 터럭이라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벼슬에 나아가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무릇 효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니……⁴⁾

효의 주된 내용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발부를 상하지 않고, 나아가서 벼슬길에 나아가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족 공동체 안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시작되고 있으며, 효 그것 자체도 이러한 개별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가족 공동체 내부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효는 하늘의 불변의 기준이며 땅의 뒤틀림이며 백성의 행실이다.⁵⁾

(나)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다.⁶⁾

4) 『孝經』, 開宗明義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5) 『孝經』, 三才章. “子曰 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

6) 『孝經』, 開宗明義章. “子曰 夫孝 德之本也”

(가)에서 공자는 효의 개별개념으로부터 보편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와 같이 효는 모든 덕목의 기본적인 덕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효가 발생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오는 윤리 규범이었지만, 일종의 자연법적인 기초를 내포하면서 그것이 국가차원에서는 통치원리로 확대 되었다.

(가) 옛날에 명철한 임금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였고,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땅을 섬기는 것도 잘 살펴서 하였고, 장유 사이에 그 차례를 따랐기 때문에 상하가 다스려졌다.⁷⁾

(나) 아버지가 간하는 자식을 두면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하여 자식이 아버지에게 諫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하면 諫爭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또 어찌 효가 될 수 있겠는가?⁸⁾

(가)에서 군주에 의한 효의 실천은 친자 사이의 윤리적 단계를 넘어서 백성들에 대한 교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통치자의 윤리 규범으로까지 설명되고 있다. (나)에서는 이념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 또는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이 일방적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가) 군자가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도하는 까닭으로 충성을 임금께 옮길 수 있다.⁹⁾

(나) 오늘날의 효란 능히 기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나 말도

7) 『孝經』, 感應章. “昔者明王 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8) 『孝經』, 諫爭章.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9) 『孝經』, 廣揚名章.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다 기르는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¹⁰⁾

(다) 부모의 몸을 봉양하는 것은 그 일이 얕은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잘 받드는 것은 그 생각이 깊은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항상 부모의 뜻을 앞서서 받들어서 섬겨야 되니 반드시 소리가 없는데도 능히 듣고, 형체가 없는데도 능히 볼 수 있어야 지극한 효가 된다. 만일 말하고 난 뒤에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¹¹⁾

(가)에서 효를 근본으로 충이 배양되는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조화시킬 수 있으며, (나)에서는 子游가 효를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것으로, 효는 물질적인 봉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에서는 아버지의 몸을 봉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하고도 저차원적인 효이지만, 아버이 말씀이 없으셔도 미리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가 아니라는 뜻이다.

(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남의 부모까지 공경하는데 미치며, 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미친다.¹²⁾

(나) 아버이를 친함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시 만물을 애중하게 되는 것이다.¹³⁾

(가)에서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에게까지 효를 넓혀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인간행위가 그 자체에서 그침이

10) 『論語』 孝政篇.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11) 『孟子』 事孰章. 集註文 “父母之口體者 其事淺 承順父母之心之者 其事深 <中略> 故事之者 常先意承事 必能聽於無聽 視於無形 然後爲至 若必德其言而後從 固已不可”

12) 『孟子』 梁惠王 上.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13) 『孟子』 盡心章 上.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아니고 보편성을 향해서 연결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다시 인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어』·『맹자』·『효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정리하면 효는 모든 덕목의 뿌리가 되며,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닦는 일이다. 또한 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정치·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욱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뜻을 헤아릴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특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식이 지켜야 할 덕목에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봉양하고, 존경하며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관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현존재는 무수한 인연의 은혜로 가능하다. 따라서 불교의 보은 사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 은혜 가운데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가 중시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효 사상은 여기서 근원하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일찍부터 부모의 내세를 위하여 공적을 쌓는 흔적을 볼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 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父母恩重經』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은혜가 한량이 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다.

이 경은 부모의 은덕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懷耽

14) 李箕永(1977), 68-73면.

守護恩인데, 잉태하고서 지켜준 은혜를 말한다. 둘째는 臨產受苦恩인데, 해산할 때 고통을 받은 은혜를 말한다. 세 번째는 生子忘憂恩인데, 이것은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은 은혜를 말한다. 네 번째는 咽苦吐甘恩인데, 쓴 것도 삼키고 단것도 뱉어 먹여주신 은혜를 말한다. 다섯째는 廻乾就濕恩인데, 이것은 진자리 마른자리를 가려 눕어주신 은혜를 말한다. 여섯째는 乳哺養育恩인데, 이것은 젖을 먹여주고 키워주신 은혜를 말한다. 일곱 번째는 洗濯不淨恩인데, 이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 주신 은혜를 말한다. 여덟 번째는 遠行憶念恩인데, 자식이 멀리 여행함을 걱정해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아홉 번째는 爲造惡業恩인데, 자식을 위해서 악업을 거둬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열 번째는 究竟憐愍恩인데, 이것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말한다.¹⁵⁾

이 경의 특징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 유교의 『효경』이 아버지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효경』이 효도를 강조하는데 비해 이 경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원은 은혜이다.¹⁶⁾

불교에서는 효를 大戒로 삼는다. 불자로서 효를 행하지 않으면 戒를 지닌 것이 아니다. 곧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효행의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효를 ‘도를 실천하는 방편’으로 생각하여 유교에서와 같이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있어서는 그 뜻을 받들어 결국에는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중시한다.

대체로 불교와 유교의 윤리관을 볼 때 유교는 상당히 世間的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유교에서는 인간과 사회가 의거해야 할 바의 준칙으로

15) 權五奭 譯解(1994).

16) 金希珍(1999), 17면.

서의 道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교는 궁극적으로 인간 자아의 완성, 즉 성불을 도모하며 불국토의 건설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출세간을 지향하는 불교에 어떻게 세간의 윤리 규범이 있겠는가라는 오해가 짝트게 된다. 麗末鮮初에 排佛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 불교를 無父無君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¹⁷⁾

이상으로 고전에 나타난 효 사상의 모습을 중국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논어』·『맹자』·『효경』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았고, 불교에 나타난 효의 모습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물론 궁극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나, 유교 못지않게 불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으며, 효를 통해 결국 불교에 귀의하는 것이 유교의 효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眞定과 大城의 불교적 孝

『삼국유사』의 효선 편에 나오는 진정과 대성설화는 세속적인 차원의 효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현세에서의 심신의 평안이나 물질적인 충족을 도모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菩提心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효를 이루고 있다.¹⁸⁾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法師 眞定은 신라 사람이다. 俗人으로서 있을 때 군대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들지 못했다. 군대 복역의 여가에는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오지 다리 부러진 술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중이 문간에 와서 절을 지을 쇠붙이를 구

17) 鄭柄朝(1989), 240-244면.

18) 趙美延(2000a), 206면.

하므로 어머니가 술을 시주했는데 이윽고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말하고 또한 아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살피니, 진정이 기쁜 안색을 나타내며 말했다. “佛事に 시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술이 없더라도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에 瓦甌을 술으로 삼아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했다. 일찍이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義湘法師가 태백산맥에서 說法을 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금시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어머니께 고했다. “효도를 마친 뒤에는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 깎고 도를 배우겠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人生은 너무나 빠른 것이니, 효도를 마친 후라면 또한 늦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찌 내 죽기 전에 네가 佛道를 아는 것만 하겠느냐.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은, “어머님 만년에 오직 제가 옆에 있을 뿐 이온데 어찌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어머니는 “아! 나를 위해서 출가를 하지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록 생전에 三牢七鼎¹⁹⁾으로 나를 봉양하더라도 어찌 가히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衣食을 남의 문간에서 얻더라도 또한 가히 天壽를 누릴 것이니 꼭 내게 효도를 하고자 하면 네 말을 말라.”라고 하였다. 진정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즉시 일어나서 쌀자루를 모두 털어 보니 쌀 일곱 되가 있었다. 그날 이 쌀로 밥을 짓고서 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자면 더딜까 두려우니 마땅히 내 눈앞에서 그 한 되 밥을 먹고 옛 되 밥은 싸 가지고 빨리 떠나거라.” 진정은 흐느껴 울면서 굳이 사양하며 말했다.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함이 그 또한 자식 된 자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며칠 동안의 미음거리까지 모두 싸 가지고 떠난다면 천지가 저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 사양했으나 어머니는 세 번 권했다. 진정은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길을 떠나 밤낮으로 3일 만에 태백산에 이르러 의상에게 의탁하여 머리 깎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진정이라 했다. 3년 후 어머니의 부고가 오자 眞定은 跏趺坐를 하고 禪定에 들어가 7일 만에 나왔다. 설명하는 이는 말하기를 “추모와 슬픔이 지극하여 거의 견딜 수 없었으므로 定水로써 슬픔을 씻은 것이다.” 했

19) 삼뢰칠정(三牢七鼎) : 삼뢰는 소, 돼지, 양이고 칠정은 술 일곱 개에 음식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진수성찬의 뜻이다.

다. 혹은 “禪定으로써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을 관찰하였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은 實理와 같이 해서 명복을 빈 것이다.” 하였다. 禪定을 하고 나온 뒤에 그 일을 義湘에게 고하니 의상은 門徒를 거느리고 소백산 錐洞에 가서 초가를 짓고 제자의 무리 3천 명을 모아 약 90일 동안 華嚴大典을 강론했다. 강론하는 데 따라 門人 智通이 그 요지를 뽑아 책 두 권을 만들고 이름을 <錐洞記>라 하여 세상에 널리 퍼졌다. 강론을 다 마치고 나니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²⁰⁾

즉, 아버지의 몸을 봉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하고도 저차원적인 효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셔도 미리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을 ‘本’이라 한다면 음식을 봉양하는 것은 ‘末’이 된다. ‘말’은 ‘본’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중심이 될 수 없다.

가난하고 미혼인 진정에게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과제는 홀어머

20) 『三國遺事』 <眞定師孝善雙美> “法師眞定羅人也 白衣時隸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 傭作受粟 以養孀母 家中計產 唯折脚一孥而已 一日有僧到門 求化營寺鐵物 母以孥施之既而定從外歸 母故之告 且虞子意何如爾 定喜現於色曰 施於佛事 何幸如之 雖無孥又何患乃以瓦盆爲釜 熟食而養之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 在太伯山說法利人 卽有嚮慕之志 告於母曰 畢孝之後 當投於湘法師 落髮學道矣 母曰 佛法難遇 人生大速 乃曰畢孝 不亦晚乎 曷若必予不死 以聞道聞 慎勿因循 速斯可矣 定曰 萱堂晚景 唯我在側 曩而出家 豈敢忍乎 母曰 噫爲我防出家 令我便墮泥黎也 雖生養以三牢七鼎 豈可爲孝 予其衣食於人之門 亦可守其天年 必欲孝我 莫作爾言 定沈思久之 母卽起啣倒囊儲 有米七升 卽日畢炊 且曰 恐汝因熟食經而營行慢也 宜在子目下 栲其一 臚其六 速行速行 定飲泣固辭曰 曩母出家 其亦人子所難忍也 況其杯漿數日之資 盡嚙而行 天地其謂我何 三辭三勸之 定重違其志 進途宵征 三日達于太伯山 投湘公荆染爲弟子 名曰眞定 居二年 母之訃音至 定踰跌入定 七日乃起 說者曰 追傷哀毀之至 殆不能堪 故以定水滌之爾 或曰 以定觀察母之所生處也 或曰 斯乃如實理薦冥福也 旣出定 以後事告於湘 湘率門徒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其樞要 成兩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니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은 일반인들이 행하는 효행과는 달리 흠어미를 남겨두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효의 정신이 사회와 모든 만물에 확산될 때 자비심과 효는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어머에게 몸을 받았더라도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였으므로 큰 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²¹⁾

이런 불교적 원리로 볼 때, 진정의 모는 자신으로 인해 자식의 출가가 방해가 된다면 자신은 현세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도 현재보다 무한한 내세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진정은 어머니의 봉양이 걱정이 되었지만 마침내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뜻을 받드는 것이 으뜸이 됨을 헤아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남겨두고 출가를 하였다.

‘진정사효선쌍미조’에서 주체는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진정이다. 파송자는 설법을 하여 진정으로 하여금 불법에 귀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의상대사이다. 상대자는 가난이며, 조력자는 가난이란 조건 속에서 서도 入定하도록 이끈 어머니이다. 대상은 어머니의 왕생이며, 수신자는 왕생을 이루는 어머니이다. ‘신성의 징표’는 가난이라는 부정으로 나타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효와 입장을 이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련 및 도전’은 ‘입정하려 해도 입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과 어머니의 죽음’이며, ‘주체의 목적 실현’은 ‘입정과 어머니의 왕생’이다. 따라서 이 서사는, ‘집이 가난한 진정이 품을 팔아 흠어머니 공양 → 어머니가 솔시주 → 어머니의 강권으로 출가함 → 어머니의 죽음 → 입정(入定) →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이미 하늘에 있다 함’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²²⁾

따라서 진정의 설화는 ‘孝善雙美’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버

21) 趙美延(2000b), 26면에서 재인용.

22) 이도흠(1995), 435면.

이에 대한 효와 불에 대한 선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효를 행하는 것은 선업을 쌓는 일이고, 선업을 쌓는 것은 곧 효를 행한다고 고차원적인 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대성설화에도 나온다.

牟梁里(혹은 淨雲村이라고도 쓴다)의 가난한 여인 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하여 城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大城이라 했다. 집이 군색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 부자 福安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그 집에서 약간의 밭을 얻어 의식의 자료로 삼았다. 이때 開士 漸開가 六輪會를 興輪寺에서 베풀고자 하여 福安의 집에 가서 布施할 것을 권하니, 福安은 벼 50필을 보시하므로 접개는 呪文을 읽어 축원했다. “檀越이 布施하기를 좋아하니 天神이 항상 지켜 주실 것이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게 되는 것이니 안락하고 수명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이 듣고 뛰어 들어가 그 어미에게 말했다.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저는 宿善이 없어 지금 와서 곤궁한 것이니 이제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來世에는 더욱 구차할 것입니다.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法會에 보시해서 뒷날의 應報를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도 좋다고 하므로, 이에 밭을 접개에게 보시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대성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날 밤 國相 金文亮의 집에 하늘의 외침이 있었다. “모랑리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네 집에 태어날 것이다.” 집 사람들이 매우 놀라 사람을 시켜 모랑리를 조사하게 하니, 大城이 과연 죽었는데 그날 하늘에서 외치던 때와 같았다. 김문량의 아내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꼭 쥐고 있다가 7일 만에야 뗏는데 大城 두 자를 새긴 金簡子가 있었으므로 다시 이름을 대성이라 하고, 그 어미를 집에 모셔 와서 함께 봉양했다. 이미 장성하자 사냥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느 날 吐畝山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밑 마을에서 잤다. 꿈에 곰이 변해서 귀신이 되어 시비를 걸며 말했다. “네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겠다.” 대성이 두려워서 용서해 달라고 청하니 귀신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절을 세워 주겠느냐?” 하고 말했다. 대성은 그러마고 약속했는데 꿈을 깨자 땀이 흘

러 자리를 적셨다. 그 후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꿈을 잡은 자리에 꿈을 위해서 長壽寺를 세웠다. 그로 인해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願이 더욱 더해 갔다. 이에 이승의 양친을 위해 佛國寺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를 세우고, 神琳·表訓 두 聖師를 청하여 각각 살게 했다. 이름답고 큰 불상을 설치하여 부모의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또한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착한 보시의 영험을 가히 믿지 않겠는가. 장차 石佛을 조각하고자 하여 큰 돌 하나를 다듬어 龕蓋를 만드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대성이 분하게 여기다가 어렴풋이 줄았는데 밤중에 天神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으므로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쪽 고개로 급히 달려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을 공양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香嶺이라고 했다. 불국사의 雲梯와 석담은 돌과 나무에 조각한 技工이 東都의 여러 절 가운데서도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옛 鄉傳에 실려 있는 것은 이상과 같다. 그러나 절 안의 기록에는 이렇다. “景德王 때에 大相 大城이 天寶 10년 辛卯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惠恭王 때를 거쳐 大歷 9년 甲寅 12월 2일에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이를 완성시켰다. 처음에 瑜珈敎의 高僧 降魔를 청하여 이 절에 거주하게 했고 이를 계승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古傳과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讚해 말한다. 牟梁에 봄이 지니 三畝의 밭을 보시하고, 香嶺에 가을이 오니 萬金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백 년 사이 가난과 富貴를 겪었는데, 槐庭²³⁾은 한 꿈 사이에 二世를 오갔구나.²⁴⁾

23) 재상인 김대성을 말한다.

24) 『三國遺事』 <大城孝二世父母神文代>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慶祖有兒 頭大頂平如城 因名大城 家窘不能生育 因役備於貨殖福安家 其家俵田數畝 以備衣食之資 時有開士漸開 欲設六輪會於興輪寺 勸化至福安家 施布五十疋 開狝願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 大城聞之 跳外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罔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善 乃施田於開 未幾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大城兒 今託汝家 家人震驚 使檢牟梁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爪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兼養之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 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請容赦 鬼曰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 恠 既覺 汗流被泪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대성’ 역시 ‘진정’과 마찬가지로 봉양과 보시에 그의 효선이 초점이 있다. 대성의 모자도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유일한 식량책인 두어 마지기 밭을 보시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이 때 대성은 혼자만이 아닌 어머니와 함께 福樂을 누리하고자, 어머니를 권하여 보시공덕을 닦음으로써 효를 행하였다. 즉, 물질적인 봉양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어머니가 원하시는 바를 맞추어 드리고자 한 것이다. 그 후 대성은 재상의 집에 태어나 前世의 어머니를 모심으로써 전세에 하지 못했던 口養까지 다할 수 있었다. 대성은 비록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에 귀의하여 석불사와 불국사를 창건함으로써 二世父母에게 효를 다 하였다.²⁵⁾

‘대성효이세부모조’에서 주체는 대성, 상대지는 고용살이할 정도의 가난과 곱, 세 조각으로 갈라진 석불이다. 수신자는 이승의 두 아버지와 전생의 부모, 파생자는 가난이란 상대자를 만나 환생을 통하여 이것을 넘어서도록 이끈 漸開이다. 조력자는 경주 제일의 석불을 만들어주는 천신이다. 여기서 ‘신성의 징표’를 보면 처음엔 고용살이 할 정도의 가난이란 부정으로 나타나나 이것 또한 대성의 효와 불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시련 및 도전’은 ‘가난과 곱을 죽임, 그리고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짐’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환생함과 곱을 위해 응수사를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 表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勞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善施之驗 不可信乎 將彫石佛也 欲鍊一大石 爲龕蓋 石忽三裂 憤樗而假寐 夜中天神來降 畢造而還 城方枕起 走跋南嶺啣木 以供天神 故名其地爲香嶺 其佛國寺雲梯石塔 彫鏤石木之功 東部諸刹未有加也 古鄉傳所載如上 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不同 未詳孰是 讚曰 牟梁春後施三畝 香嶺秋來獲萬金 萱室百年貧貴 槐庭一夢去來今”

25) 趙美延(2000b), 26면.

짓는 것과 전생과 이승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함, 천신이 석불을 만들어줌이다. 따라서 이 서사는, ‘가난한 집의 대성이 고용 살이함 → 밭을 접개에 보시하고 죽음 → 재상 김문량의 집에 환생 → 꿈을 죽임 → 꿈에 귀신으로 변한 꿈의 책망을 듣고 응수사를 짓고 다시 이승의 두 아버지와 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불사 창건 → 석불을 새기던 돌이 세 조각 남 → 천신이 내려와 경주 제일의 석불을 만들어줌’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진정과 대성 설화는 어머니의 口養뿐만 아니라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이를 맞추어 드린 효행설화이다. 아울러 효선 편목의 서사는 ‘주체의 신성성 → 시련 및 도전 → 조력자의 도움 → 효 실현의 구조’를 지향한다.

3. 向得과 孫順 그리고 貧女의 孝

아버이를 봉양하는데 있어서 뜻이 배제된,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을 봉양하는 것은 진정한 효가 아닌 것이다. 음식을 봉양하는 것은 진정한 양지의 효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 만약 향득·손순·빈녀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고 口養에만 힘썼다면 史書에는 물론 지금까지 회자되어 구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백성을 교화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입전하여 사서에 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熊川州에 向得이란 舍知가 있었다. 龠년이 들어 그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자 향득은 다리의 살을 베어 봉양했다. 고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세히 上奏하자 景德王은 곡식 500석을 상으로 하사했다.²⁷⁾

26) 이도흠(1995), 435면.

향덕은 신라의 熊川州(지금의 공주) 板積鄉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善이요 지는 潘吉인데, 천성이 온순하고 선량하여 온 고을이 그의 행실을 추앙하였다. 어머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향덕 또한 효도와 공손함으로 당시에 칭찬을 받았다.

天寶(당 현종의 연호) 14년(신라 갈덕왕 14년) 을미년(755)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유행병마져 겹쳤다. (향덕의) 부모도 주리고 병든 데다 어머니는 종기까지 나서 모두 죽게 되었다. 향덕은 밤낮으로 입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으나 봉양할 길이 없었다. (향덕은)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였다. 그리하여 鄉司(지방관청)에서는 州에 보고하고 州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명을 내려 벼 300가마, 집 한 채, 식구 수에 따라 田 얼마씩을 주게 하고, 관원을 시켜 비석을 세워 사적을 기록하여 표본으로 삼게 하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곳을 孝家라고 부른다.²⁸⁾

위의 글을 보면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비해서 간략한 편이다. 향덕이 다리 살을 베어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내용은 두 기록이 같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向得으로 표기했고, 또한 그의 관등이 舍知라고 했다. 『삼국사기』에는 王명으로 조 300석과 집 한 채, 그리고 약간의 구분전을 주고 비를 세워 주었다고 했는데, 『삼국유사』에는 조 500석을 주었다고 했다.²⁹⁾ 일연은 향덕의 효행을 ‘割股供親’으로 요약해서 제목을 삼았다. 그러므로 향덕이 어버이를 위해서 다리 살

27) 『三國遺事』〈向得舍知割股供親景德王代〉 “能川州有向得舍知者 年凶 其父幾於婚死 向得割股以給養 州人具事奏聞 景德王賞賜租五百石”

28) 『三國史記』卷第四十八. “向德 熊川州板積鄉人也 父名善 字潘吉 天資溫良 鄉里推其行 母則失其名 向德亦以孝順 爲時所稱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癰 皆濱於死 向德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割腓肉以食之 又吮母癰 皆致之平安 鄉司報之州 州報於王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 以標之 至今 人號其地云孝家”

29) 金相鉉(2000), 160면.

을 배어 바쳤다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정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위하여 혹은 부모와 타인을 위하여 몸을 보시한 것으로, 원래 유교에서는 신체의 터럭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몸과 마음을 결집한 지극한 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설화가 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다리 살을 배어 바칠 정도의 인물이라면 養口의 문제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양구만을 이야기한 설화 같지만 양구를 포함한 養志의 설화로 파악할 수 있다.

‘손순매야’는 신라 하대 흥덕왕(809-826) 때에 있었던 설화로 다음과 같다.

孫順(古本에는 孫舜이라고 했다)은 牟梁里 사림이니 아버지는 鶴山이다. 아버지가 죽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運鳥였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항상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손순은 민망히 여겨 그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소. 그런데 아이가 어머님의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 어머님은 굶주림이 심하시니 이 아이를 땅에 묻어서 어머님 배를 부르게 해드려야겠소.” 이에 아이를 업고 醉山(이 산은 牟梁里 서북쪽에 있다) 북쪽들에 가서 땅을 파다가 이상한 石鐘을 얻었다. 부부는 놀라고 괴이히 여겨 잠깐 나무 위에 걸어 놓고 시험 삼아 두드렸더니 그 소리가 은은해서 들을 만하다. 아내가 말했다.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필경 이 아이의 복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묻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편도 이 말을 옳게 여겨 아이와 石鐘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고 두드렸더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다. 興德王이 이 소리를 듣고 좌우를 보고 말했다. “서쪽들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맑고도 멀리 들리는 것이 보통 종소리가 아니니 빨리 가서 조사해 보라.” 왕의 使者가 그 집에 가서 조사해 보고 그

사실을 자세히 아뢰니 왕은 말했다. “옛날 郭巨가 이들을 땅에 묻자 하늘에서 금 술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손순이 그 아이를 묻자 땅 속에서 석종이 솟아나왔으니 前世의 효도와 후세의 효도를 천지가 함께 보시는 것이로구나.” 이에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 순후한 효성을 숭상했다. 이에 손순은 예전에 살던 집을 회사해서 절로 삼아 弘孝寺라 하고 석종을 모셔 두었다. 眞聖王 때에 후백제의 횡포한 도둑이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아 있다. 그 종은 얻은 땅을 完乎坪이라 했는데 지금은 잘못 전하여 枝良坪이라고 한다.³⁰⁾

이 설화에서는 어머니와 자식 중에서 어머니를 선택한 손순의 효를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 없지만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기에 자식을 포기 한다는 것이다. 다시 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어머니와 다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존재인 아이 사이에서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억누르고 어머니를 선택했기에 손순의 행위는 효의 문맥에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종의 출현은 손순의 효도에 천지가 감응한 결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아이의 죽음을 면하게 해 준 것도 종의 공덕이다. 종소리는 멀리 대궐의 국왕까지 전달되어, 이를 계기로 흥덕왕은 손순의 효를 알게 되었고, 이에 왕은 손순의 효성을 표상하여 집과 곡식을 하사하게 되었다. 결국 종소리는 손순의 효

30) 『三國遺事』〈孫順埋兒興德王代〉 “孫順者[古本作孫舜] 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傭作人家 得米穀養老孃 孃名烏運烏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山在牟梁西北]北郊 掘地忽得石鐘甚奇 夫婦驚愕在 乍懸林木上 試擊之 沃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鐘而還家 懸鐘於梁涇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鐘聲 清遠下類 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樞子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鐘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尙純孝焉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鐘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鐘亡寺存 其得鐘之地 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성을 국왕에게까지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빈곤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손순의 옛집은 홍효사가 됨으로써 초라하던 세속적인 공간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종교적인 공간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들중의 소리 이미지와 결합한 충족의 기능은 종교적인 구원의 차원으로까지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³¹⁾

손순설화는 효선편의 다른 설화와 마찬가지로 ‘효자는 하늘이 알아주고 효행은 신이 감응하여 돕는다.’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어머니가 좋아하는 손자를 묻는 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효자는 하늘이 알아서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막아준다는 신념 때문에 죄악이 오히려 미담으로 될 수 있고,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설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²⁾

다음은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와 『삼국사기』 ‘효녀지은조’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孝宗郎이 南山 鮑石亭(혹은 三花述이라고도 했다)에서 놀고자 하자 門客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오므로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芬皇寺 동쪽 마을에 여인이 있는데 나이는 20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통곡하므로 같은 마을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이 여자는 집이 가난해서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한 지가 이제 여러 해가 되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결식 해다가 살리기도 어렵게 되어 이에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곡식 30석을 얻어서 주인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날이 저물면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먹고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고, 새벽이면 주인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 그 어

31) 강진옥(1985), 143면.

32) 趙美延(2000b), 33면.

머니가 말하기를 전일에 糲糶를 먹을 때는 마음이 편하더니 요새 쌀밥을 먹으니 창자를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치 못하니 어찌된 일이나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니는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자기가 다만 어머니의 口腹의 봉양만을 하고 色難³³⁾을 하지 못함을 탄식하여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효종량은 이 말을 듣고 측은해하여 곡식 100석을 보냈다. 낭의 부모도 또한 옷 한 벌을 보냈으며, 수많은 郎의 무리들도 곡식 1,000석을 거두어 보내주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자 그 때 眞聖王은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 주고 또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해서 도둑을 막도록 했다. 또 그 마을을 표창해서 孝養里라 했다. 그 뒤에 그 집을 회사해서 절을 삼고 兩尊寺라 했다.³⁴⁾

효녀 지은은 신라 韓岐部(慶州)의 백성인 連權의 딸이었다. 천성이 효도에 지극하여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이 32세가 되었으나 시집을 가지 않고, 조석으로 (어머니를) 보살피며 좌우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품팔이도 하고 혹 나가서 밥을 빌어다 봉양하기를 오래하니, 피곤함을 견딜 수 없었다.

부잣집을 찾아가 종으로 팔리기를 지원하여 쌀 10여 섬을 받았다. 종일도록 그 집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보양하였는데 그렇게 하기를 3, 4일을 지냈다.

어머니가 그 딸에게 말하기를 “지난날에는 밥을 먹어도 달았는데 요즘 밥은 좋으나 맛이 전만 못하고 마치 칼로 가슴을 에는 것 같으니 이것이

33) 色難은 부모의 안색을 보고, 부모의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받들고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34) 『三國遺事』卷5, 孝善9, <貧女養母>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述.] 門客星馳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此女家貧 乞畝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叟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糲糶 心和且平 近日之香粳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已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亦送衣袴一襲 郎之千徒 玄租一千石遺之 事達震聽 時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卒徒衛其家 以儆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무슨 심사나” 하였다. 딸이 사실을 말하였다. 그 어머니는 “나 때문에 네가 종이 되었으니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이내 소리를 놓아 크게 울었다. 딸도 따라 울어 그 슬픔이 길가는 나그네를 감동케 하였다.

그때 孝宗郎이 외출하였다가 이를 보고 돌아가 부모님께 청하여 곡식 100섬과 의복 등속을 보내주고, 또 (그를) 종으로 산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良民이 되게 해 주었다. 낭도 수 천 명이 각기 곡식 한 섬씩 보내오자, 대왕(정강왕)이 듣고 벼 500섬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부역을 없애 주었다. 또 곡식이 많아서 도둑질 해가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소속 관원에게 명하여 병사를 보내 번갈아 지켜주게 하였다.

그 마을에 꽃밭을 세워 孝養坊이라 하였고, 표문을 唐王室에 올려 미행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효종당은 당시 제3 재상 서발한 仁慶의 아들인데, 어릴 적 이름은 化達이었다. 왕은 그가 비록 어리나 노성한 점이 있다 하여, 왕의 친형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³⁵⁾

『삼국사기』의 ‘효녀지은조’와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는 서술방식과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양 사서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는 紀傳體로 기술된 正史이며, 따라서 ‘효녀지은조’도 기전체 列傳의 서술형식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知恩이라는 이름과 그 출신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야기의 전개가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사기의 편찬자가 이 사건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열전 형

35) 『三國史記』 卷第四十八. “孝女知恩 韓歧部百姓連權女子也 性至孝 少喪父 獨養其母 年三十二 猶不從人 定省不離左右 而無以爲養 或傭作或行乞 得食以飼之 日久不勝困憊 就富家請賣身爲婢 得米十餘石 窮日行役於其家 暮則作食歸養之 如是三四日 其母謂女子曰 向食麤而甘 今則食雖好 味不如昔 而肝心若以刀刃刺之者 是何意耶 女子以實告之 母曰 以我故使爾爲婢 不如死之速也 乃放聲大哭 女子亦哭 哀感行路 時孝宗郎出遊 見之 歸請父母 輸家粟百石及衣物予之 又償買主以從良 郎徒幾千人 各出粟一石爲贈 大王聞之 亦賜租五百石 家一區 復除征役 以粟多恐有剽竊者 命所司差兵番守 標榜其里曰孝養坊 仍奉表 歸美於唐室 孝宗 時第三宰相舒發翰仁慶子 少名化達 王謂雖當幼齒 便見老成 卽以其兄憲康王之女 妻之”

식에 맞추어 기술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삼국유사』의 ‘빈녀양모조’는 포석정에 뒤늦게 도착한 두 낭도가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마을사람에게서 들었던 것을 전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삼국유사』에서의 지은이라는 인물과 효행에 대한 묘사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술과 이야기의 전개도 『삼국사기』에 비해 허술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현실감이 있고 정황의 묘사도 상세하여 편찬자에 의해 정돈된 사기의 내용보다 설화의 본래 모습을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에서는 많은 부분이 지은이 몸을 팔게 된 애처롭고 안타까운 처지와 지은과 어머니 사이에 교감하는 끈끈한 애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지은은 몸을 팔아 노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두 모녀가 굶주려 죽을 만큼 다급한 처지도 아니었고 아주 이별을 하여 다시 만나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좋은 쌀밥을 먹고 있었고, 지은은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면 출퇴근하는 정도의 종살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곤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녀의 애틋한 사랑이라고 하겠다.³⁶⁾

이에 비해 『삼국사기』에서는 효종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다. 효종은 出遊 중에 지은과 어머니가 함께 울고 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곡식 100석과 옷가지를 보내주고 지은을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 준 것도 효종이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와는 달리 효종은 설화의 전면에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화의 말미에 별도로 효종의 신상 소개와 현강왕녀와의 혼인

36) 전기웅(2005), 207면.

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사기의 서술이 효종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은의 孝行 못지않게 효종과 국왕의 빈민구휼 행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두 사서는 구체적인 면에서 얼마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가 되는 이야기의 큰 틀은 같다. 즉 하나의 사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삼국유사』의 경우, 어머니의 口腹만을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탄식한다고 하여, 효친에는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시는 일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훗날 그 집을 회사하여 절로삼고 양존사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빈녀양모설화’도 불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결국 향득, 손순, 빈녀가 비록 아버지가 물려주신 몸을 훼손하거나 자식을 매장하는 등 권도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봉양하였으나, 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이 우선시되어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다. 이는 하늘을 감동시킬만한 효성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至誠感天’이라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신 공희를 통한 효행설화의 일반적 구조는 ‘효자(효녀)가 부모를 정성을 다해 봉양함 → 가장 중요한 것(자기 신체의 일부, 자신의 목숨 등)을 희생함 →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 → 부모에게 효도하며 행복한 결말에 이룸’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7) 金相鉉(2000), 162면.

Ⅲ. 「孝善」篇 設定의 意義

「효선」편 설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자들은 눈에 띄게 독특한 편목이거나, 부록의 성격을 지닌 편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효선」편은 결코 독특한 편목이 아니며, 더구나 민병하의 논단처럼 편차 상 맨 뒤에 설정되어 있기에 부록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도 아니다.

「효선」편은 『삼국유사』 전 편목으로 볼 때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유기적으로 짜여진 편목이다. 맨 앞의 편목인 「기이 편이 뒤에 올 여타 편목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 마지막 편목인 「효선」편은 여타의 앞 편목을 마감하는 편목이며, 기이 편 首尾相應의 관계를 지닌 편목이다.³⁸⁾

궁극적으로 일연이 「기이」편을 편찬한 의도는 여타 편을 위한 단서로 삼고자함이었다. 삼국 시조가 나온 것을 괴이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신이한 것으로서 다루었듯이 여타 편에 불교에 대한 것들도 괴이한 것이 아니라 신이한 것으로서 보여주어서 믿도록 한 것이다.

당시 불교는 왕실과의 밀착으로 방대한 寺田과 寺奴를 소유하고 사상적으로 종파간의 갈등기에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拜佛論의 입장에 있던 유학자들은 현실에서 실천을 강조하며 불교를 비판하였다.

대표적으로 유학자 崔滋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부처를 받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치며, 승려들은 모두 權門에 붙어서 富力만을 추구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安珣은 아버이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불자들을 夷狄의 무리라고까지 했다.

38) 趙美延(2000), 216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연은 불교도 유교 못지않게 현세적임을 보이
기 위해 유자들이 실천윤리 중 가장 중시여기는 효를 통해 이를 극복하
고자 한 것이다. 즉 현실에서 행할 수 있는 불교적 효행으로써 ‘진정설
화’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출가의 효행, ‘대성설화’에서는 보시의
효행, ‘향득·손순 설화’에는 보시의 극치인 捨身施의 효행, ‘빈녀
설화’에서는 진정한 효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³⁹⁾

특히 ‘진정설화’는 孝善雙美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진정한 효선은
효선이라는 편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내용이다. “佛法은 만나기 어렵
고, 人生은 너무나 빠른 것이니, 효도를 마친 후라면 또한 늦지 않겠느
냐. 그러니 어찌 내 죽기 전에 네가 佛道를 아는 것만 하겠느냐. 주저하
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한, “어머님 만년에 오직 제
가 옆에 있을 뿐 이온데 어찌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어
머니는 “아! 나를 위해서 출가를 하지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록 생전에 三牢七鼎으로 나를 봉양하더라도 어찌 가히
효도가 되겠느냐?” 이처럼 진정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내용은 곧 불교의 효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일
연의 효선에 대한 생각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효선」편에 나타난 불교적 성격을 크게 보시와 업보윤회사상에서 찾
을 수 있다. 먼저 「효선 편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시(布
施)는 그 내용에 따라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진정·대성·빈녀는 전자에, 향득·손순은 후자에 속하는 보시이다.

다른 구전설화에서는 대개 현실적인 보상으로 끝을 맺거나 지명유래
로 끝나게 되는 반면, 「효선 편 설화만은 寺刹緣起譚으로 서술되어 있

39) 위의 책, 218면.

다. 사찰연기담은 단순히 명칭의 유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곳곳에서 불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찰 또는 그것이 있는 산이나 동리의 명칭을 설명하는 설화들이 불교교화의 목적을 띠고 전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일연은 이러한 설화들을 선택하거나 불교화 하여 수록함으로써 불심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결국 「효선」편 설정의 의의는 전체 편목과 유기적인 관련에서 볼 때, 神異性和 神聖性이라는 요소로 인해 다른 설화와 구분 지으려한 기이, 편과 首尾相應의 관계를 지님으로써, 불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孝’라는 현실에서의 실천윤리를 통해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편목으로 볼 때는 當代 유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보시와 출가의 문제를 ‘효’라는 실천 윤리를 통해 극복하고, 이러한 효가 바탕이 되어 내세의 복락을 보장받음으로써 유교의 효 이상의 것이 불교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護教的인 의미로 집약될 수 있다.⁴⁰⁾ 일연이 『삼국유사』에 「효선」편을 설정한 것도 유교의 효와는 다른 불교의 효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일연은 구체적인 인간 세상에서 당위적인 효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불교의 감화력이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IV. 結論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40) 위의 책, 219면.

가장 본질적인 윤리인 ‘효’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진정의 설화’는 ‘孝善雙美’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버이에 대한 효와 불에 대한 선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효를 행하는 것은 선업을 쌓는 일이고, 선업을 쌓는 것은 곧 효를 행한다고 고차원적인 효를 보여주고 있다. ‘대성’ 역시 ‘진정’과 마찬가지로 봉양과 보시에 그의 효선이 초점이 있다. 진정과 대성 설화는 어머니의 口養뿐만 아니라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이를 맞추어 드린 효행설화이다. 아울러 효선 편목의 서사는 ‘주체의 신성성 → 시련 및 도전 → 조력자의 도움 → 효 실현의 구조’를 지향한다.

일연은 향득의 효행을 ‘割股供親’으로 요약해서 제목을 삼았다. 그러므로 향득이 어버이를 위해서 다리 살을 베어 바쳤다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정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위하여 혹은 부모와 타인을 위하여 몸을 보시한 것으로, 원래 유교에서는 신체의 터럭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몸과 마음을 결집한 지극한 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손순매아설화’는 효선편의 다른 설화와 마찬가지로 ‘효자는 하늘이 알아주고 효행은 신이 감응하여 돕는다.’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어머니가 좋아하는 손자를 묻는 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효자는 하늘이 알아서 그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막아준다는 신념 때문에 죄악이 오히려 미담으로 될 수 있고,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설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빈녀양모설화’는 어머니의 口腹만을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

리지 못했음을 탄식한다고 하여, 효친에는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시는 일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훗날 그 집을 회사하여 절로삼고 양존사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빈녀양모설화’도 불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신 공희를 통한 효행설화의 일반적 구조는 ‘효자(효녀)가 부모를 정성을 다해 봉양함 → 가장 중요한 것(자기 신체의 일부, 자신의 목숨 등)을 희생함 →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 → 부모에게 효도하며 행복한 결말에 이룸’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선 편 설정의 의의는 전체 편목과 유기적인 관련에서 볼 때, 神異性和 神聖性이라는 요소로 인해 다른 설화와 구분 지으려한 「기이 편과 首尾相應의 관계를 지님으로써, 불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孝’라는 현실에서의 실천윤리를 통해 불교 사상을 강조하는데 있다. 일연은 효선 을 통하여 당위적 효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불교의 감화력이 체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엮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삼국유사』 소재 효행설화 가운데 효선 편 만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효의 본질과 각 편목의 설정 의의를 좀 더 깊이 연구해야하고, 아울러 『삼국유사』 전 편으로 범위를 확장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論語』

『孟子』

『孝經』

강진욱(1985),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143면

고전번역연구실 역/신서원편집부 꾸밈(1994), 『삼국유사』, 서울 : 신서원

權五奭 譯解(1994), 『新譯 父母恩重經』, 서울 : 홍신문화사.

金相鉉(2000), “三國遺事 孝善篇 檢討”, 『東洋學 第30輯』, 檀國大學校 東洋學 研究所, 160-162면

金希珍(1999), “韓國 古代의 孝 思想 研究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금석문』 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17면.

김원중 옮김(2002), 『삼국유사』, 서울 : 을유문화사.

민병하(1974), “三國遺事に 나타난 孝善思想”, 『인문과학 제4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35-236면.

박진태외 4인(1997),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1)”, 『한국민속학 29호』, 509면.

신호열 역해(2007), 『삼국사기』, 서울 : 동서문화사.

李箕永(1977), “佛敎와 忠孝思想”, 『現代人의 忠孝思想』, 대한교육문화연구소, 68-73면.

이도흙(1995), “『三國遺事』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국학논총 제26집』, 435면

이민수(1994), 『삼국유사』, 서울 : 을유문화사.

전기웅(2005), “進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 207면

鄭柄朝(1989), “圓光의 菩薩戒思想”,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 佛敎史學會 編, 민족사, 240-244면

趙美延(2000a), “『三國遺事』의 「孝善」篇 研究”, 국어학논집 제17집, 206면.

趙美延(2000b), “『三國遺事』의 孝善 說話 研究”,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6면

최근덕(1995), “효의 오늘과 내일”, 『효사상과 미래』,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87면

Abstract

An Analytic Study of 『Hyoseon』 Chapter in 『Samguk Yusa』

Eum, Sun-yong*

This article examined 『Hyoseon』 tale in 『Samguk Yusa』 focusing on filial piety which is the most essential ethic for human beings.

‘Jinjeong Tale’ shows both of the filial piety to the parents and the goodness to Buddha simultaneously as can be known by the expression ‘Hyoseon Ssangmi’, which illustrates a high level of filial piety where performing filial piety means accumulating goodness and accumulating goodness means performing filial piety. The filial piety of ‘Daesung’, like ‘Jinjeong’, is focused on support and alms. The tales of ‘Daesung’ and ‘Jinjeong’ are a filial piety tale in which they not only supported their mothers but also did what their Buddhist mothers wanted them to do. In addition, the epic of 『Hyoseon』 aims at the structure of ‘sanctity of the subject → ordeal and challenge → help from the helper → realization of filial piety’

‘Sonsun Mae-A Tale’ has the conclusion that ‘The God acknowledges the dutiful son and the acts of filial piety touches the God and makes the God help’ as other tales in 『Hyoseon』 chapter. Therefore, burying the grandson whom his mother likes is only auxiliary in the whole context. It is possible that a vice can be transferred into a virtue due to the belief that knowing who is a dutiful son, the God would not let him commit such an extreme action, and such story can become an instructive tale to wake up the filial piety.

Commenting on the regret only supporting the parents materially

* Deajeon Jung Ang highschool, Teacher / sun8392@hanmil.net

without making them feel comfortable, 'Binnyeo Yangmo Tale' is opening our eyes to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in filial piety to make our parents feel comfortable as well as to support them material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donated the house to make it a temple later and named it as 'Yangjon Temple', 'Binnyeo Yangmo Tale' must have been related to Buddhism.

The common structure of the filial piety with self-sacrifice consists of such stages as 'dutiful sons (daughters) do their utmost to support their parents → sacrifices their most important thing (usually part of their body, their life) → something miraculous happens → they come to happy ending and do their filial piety to their parents'.

Looking at the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whole structure, the meaning of arranging 'Hyoseon' chapter is to emphasize the Buddhist ideas through the practical ethics of 'Filial Piety' in reality to realize the Buddhist ideal world by the head and tail relationship with 'Giyi' chapter which trie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tales with the two elements of 'super humanity' and 'divinity'. Ilyeon arranged 'Hyoseon' in a way that the Buddhist influence to touch people can be embodied in the people's life beyond the filial piety at necessity level.

Key Words Samguk Yusa, Hyoseon, filial piety tale, Binnyeo Yangmo Tale

논문투고일 2008년 9월 27일
논문심사일 2008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15일